



## 한국경영교육인증 재획득 쾌거



연세대·서강대와 함께 경영학부·일반대학원까지 우수성 인정받아



인증서 수여장면. 왼쪽부터 이영면 학장, 손태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 사진제공=홍보실 김연구

경영대학(학장=이영면, 경영학부 교수)은 1일 한국경영교육 5년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2008년 한국경영교육인증원(원장=손태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하 '인증원')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5년 인증을 받아 경영대학의 교육수준이 정상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5년이 지난 금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과정 등 전반에 대하여 현지 방문 심사(단장=배성현,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인증원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우리 경영대학은 비전과 미션, 학습 성과 및 평가,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 교수, 시설 및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경영교육기관으로서 혁신성과 행정지원체계 구축, 행정역량과 서비스 의지 등 몇 가지 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영대학의 비전과 미션이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잘 부합되게 설정되어 있고 핵심 가치와 전략적 목표 그리고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이를 잘 공유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둘째, 학습 성과 목표의 달성기준을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성취도 수준을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게 명확히 하고 있어 강의자가 학습 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취합 분석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학습 성과 목표별로 강좌비율을 산정하고 과목별로 성취도를 산정하여 종합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셋째 수업의 질적 관리, 학생들에 의한 강의 만족도 평가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 영어강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한 점은 모범적인 교육개선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넷째 엄격한 졸업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졸업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졸업상담제도를 운영 중인 점과 교원업적평가에 학생상담 항목을 반영하여 학생상담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결과를 학사정보시스템(uDRIM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면

이 매우 돋보인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본부에 CS센터가 있고 홈페이지에 Q&A를 통해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제시되면 각 단과대학별로 Q&A가 보내지고 일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는 신선했다고 밝혔다. 다섯째 2013학년도 1학기 현재 경영대학 장학금 수혜율이 62%에 이르도록 적극적인 장학금 조성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섯째 재학생 특히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평생지도교수제도를 도입한 점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른 한편 개선사항으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하여 학생상담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 취업통계와 졸업생의 진로 추적 및 졸업생관리·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졸업생 DB마련과 관리자를 정하고 소식지, 동문초청행사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아시아의 선도적인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학사운영실장 정경훈

### 지면안내

창간축사, 기자단 소개	2면
경영대학 장학금 기부자	3면
경영대 소식	4면
학교 공지사항 안내	5면
동약의 청년CEO를 만나다!	6~7면
창업관련 강의 펼치는 이영달 교수	8면
경영대 교환학생 수기	9면
DBS News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10면
외로운 삼인방의 학교생활	11면

# “동국대학교 경영대의 위상 더욱 높아질”

‘Dongguk Business School Newsletter’ 창간을 축하하며



여 준 상  
(주간 경영학부 교수)

우리 경영대학에서 학생기자단이 만드는 뉴스레터가 드디어 창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축하할 일이며,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동국대 경영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영대는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AACSB(국제경영교육인증), 한국 경영교육인증을 동시에 받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대학이며, 파격적인 전공 영어강의 비율을 통해 학교 전체의 국제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강의의 질과 교수 연구업적에서도 학내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중앙일보 평가에서 학교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장님의 주관 하에 우리 경영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실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Top Business School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영대의 발전해가는 훌륭한 모습을 대내

외 많이 알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경영대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데, DBS newsletter가 이제 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갈수록 소통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구성원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고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통을 통해 공유되지 않으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우리 경영대를 둘러싼 구성원들은 모두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부 학생들이 있으며, 실무에서 인정받는 MBA 학생들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으며, 탁월한 연구 활동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이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 안목, 지식을 서로 공유한다면 구성원 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DBS newsletter는 우리 경영대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구성원 각자가 가진 지식들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식의 허브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DBS newsletter를 통해 학교에 대한 이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 교수에 대한 이해, 동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또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취재를 통해 학부학생들로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며, MBA, 박사과정 학생들로부터 생생한 실무경험담이 나올 것이며, 교수님으로부터 경영생태계를 관통하는 인사이트가 나올 것이며, 동문들로부터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촌철살인 같은 멘트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재미있는 형식을 띠면서 스토리텔링 하듯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재미없고 어려우면 외면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 기자단의 젊고 신선한 감각을 통해 ‘재미를 느끼되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뉴스레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un & Knowledge’ 실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영대를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명실공히 동국대 경영대의 얼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줄 왼쪽부터 노창훈(경영2), 박경욱(경영3), 안현준(경영4), 김범기(경영1), 최단비(경영3), 김성원(경영3), 임상기(경영2), 박준용(회계3), 신영은(경영4), 김은영(경영2), 조윤재(경영2), 윤정희(경영2), 권윤환(경영1), 김보경(경영2, 미촬영). <촬영장소=경영관 앞 정원>

## Dongguk Business School Newsletter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경영대학은 지난 8월 ‘Dongguk Business School Newsletter’의 제작 및 기획을 담당할 학생 기자단을 모집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자단 선발 공고를 읽은 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으며,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자단 14명이 선발되었다. 앞으로 기자단은 경영대 재학생, 각계에서 활동 중이신 동문 선배님, 전·현직 경영대학 교수님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경영대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사운영실 김상명, 사진=홍보실 김연구

# 경영대학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발족

경영대학은 경영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장학기금 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경영대학장 이영면, 경영학과 동창회장 김철순)를 구성하여 지난 9월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들은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련된 사항, 장학생 선정 심의, 기타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조언을 할 예정이다. 당일 회의에서는 경영대학 장학기금 운용방안 제안사항으로 경영학사 설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림동 고시촌 또는 학교 근처에 기숙사인 경영학사를 마련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국가고시 준비 학생에게 특별지원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욱(부학장), 이준서(경영학과장), 김갑순(회계학과장), 이종욱(경영정보학과장), 이홍섭(회계학과 동창회장, 공인회계사 동우회장)이며 위원으로 김진억(국민은행 고문, 경영73), 권중근(이메인텍



DK 글로벌 장학증서 수여 장면. 사진 왼쪽부터 신대풍(경영4), 이창규 회장, 백설영(경영3), 유석천 교수. 해당 학생들은 2학기에 미국 텍사스대학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다.

대표이사, 경영80), 안영찬(비즈아이컨설팅 대표, 경영85)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사운영실 정경훈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계좌 : 국민은행 99999-3333-49 (예금주:동국대학교)  
전화번호 : 정동현(경영98) 02-2260-8992

### 경영대학 장학기금 기부자 명단 [약정금액/기부금액] (2012.11 ~ 2013.10)

- ▷ 이창규(DK메디컬 솔루션 회장, 경영59)  
[208,484,000/108,484,000]
- ▷ 김진문(신성약품회장, 경영64)[200,000,000/100,000,000]
- ▷ 정연주(삼성물산 부회장, 경영69)[100,000,000/50,000,000]
- ▷ 서정호(엠버서더 그룹 회장, 경영71)[50,000,000/50,000,000]
- ▷ 경영대학 교원일동[48,900,000/39,400,000]
- ▷ 익명[36,000,000]
- ▷ 배동기(삼성물산 부사장, 경영76)[20,000,000/10,000,000]
- ▷ 상영희(회장=김철순)[20,000,000 / 5,000,000]
- ▷ DB리더스클럽(회장=정연주)[10,000,000/10,000,000]
- ▷ 김철순(한신메디피아 원장, 경영69)[10,000,000 / 2,000,000]
- ▷ 권중근(이메인텍 대표, 경영80)[10,000,000/2,000,000]
- ▷ 민흥기(유엔아이 대표이사, 경영74)[10,000,000/2,000,000]
- ▷ 동영희(회장=권중근)[10,000,000/2,000,000]
- ▷ 안재근(삼성전자 전무이사, 경영77)[10,000,000/2,000,000]
- ▷ 한성권(현대자동차 부사장, 경영80)[2,000,000/2,000,000]
- ▷ 한진우(현대맥코 영업본부장, 경영71)[2,000,000/2,000,000]
- ▷ 김억곤(대원기계 대표이사, 경영70)[5,000,000/1,000,000]
- ▷ 김영태(전 BP화학 전무이사, 경영75)[5,000,000/2,000,000]
- ▷ 김진억(국민은행 고문, 경영74)[5,000,000/1,000,000]
- ▷ 박희창(유유칼믹대표이사, 경영75)[5,000,000/5,000,000]
- ▷ 성영석(한국포리머회장, 경영67)[5,000,000/5,000,000]
- ▷ 홍석표(풍림건설 부사장, 경영75)[2,000,000/2,000,000]
- ▷ 남택호(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 경영80)[1,000,000/1,000,000]
- ▷ 조희영(명예교수, 경영59)[1,000,000/1,000,000]
- ▷ 김영호(오스코상사 대표이사, 경영82)[2,000,000/2,000,000]
- ▷ 홍순영(SC차타드 상무이사, 경영80)[2,000,000/2,000,000]
- ▷ 강종욱(회계78)[1,000,000/1,000,000]
- ▷ 김대환(경영76)[1,000,000/1,000,000]
- ▷ 김상중(경영대학 명예교수)[1,000,000/1,000,000]
- ▷ 김효영(동강시스템 부장, 경영82)[1,000,000/ 800,000]
- ▷ 홍순용(신한회계법인 회계사, 경영67)[1,000,000/1,000,000]
- ▷ 나경준(前현대도시개발대표이사, 경영71)[1,000,000/1,000,000]
- ▷ 공인회계사동우회(회장=이홍섭, 회계80)[1,000,000/1,000,000]
- ▷ 박기진(일반대학원 박사)[1,000,000/1,000,000]
- ▷ 박정훈(CJ상무, 경영83)[1,000,000/1,000,000]
- ▷ 이길수(경영69)[1,000,000/1,000,000]
- ▷ 이성균(경영대학원, 경제86)[1,000,000/1,000,000]
- ▷ 이재석(안전회계법인 상무이사, 경영86)[1,000,000/1,000,000]
- ▷ 전준열(디자인씨아이씨 대표이사, 경영63)  
[1,000,000/1,000,000]
- ▷ 황범영(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주) 부사장, 회계82)  
[500,000/500,000]
- ▷ 황오곤(주)새한산업 대표이사, 경영72)[500,000/500,000]
- ▷ 설승현(일반대학원 박사)[300,000/300,000]
- ▷ 송호택(근로복지공단, 경영82)[300,000/300,000]
- ▷ 이계문(일반대학원 박사)[200,000/200,000]
- ▷ 이제일(서울시청, 경영83)[100,000/100,000]
- ▷ 이응우(KB국민은행, 경영82)[50,000/50,000]

#### MBA 장학금

- ▷ 경영대학원동창회[15,000,000/15,000,000]
- ▷ 이영식(주)영보화학 대표이사[15,000,000/15,000,000]
- ▷ 김기상(주)금오전자 대표이사[10,000,000/10,000,000]
- ▷ 도충락(주)도충홀딩스 대표이사, 경영전문대학원 2012)  
[25,000,000/5,000,000]
- ▷ 장종대(교촌경인유통(주) 대표이사)[5,000,000/5,000,000]

#### 경영정보학과 장학금

- ▷ 이승규(SK C&C 과장, 정보관리94)[120,000/120,000]

#### 공인회계사 장학금

- ▷ 정대진(명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81)  
[1,200,000/1,200,000]
- ▷ 김재환(미래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경영92)  
[800,000/800,000]

#### 회계학과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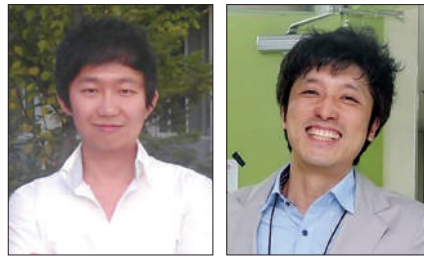
- ▷ 하찬호(주)삼천리 전무이사, 회계79)[600,000/600,000]
- ▷ 고상원(회계96)[110,000/110,000]
- ▷ 이낙영(수원세무서, 세무회계2001)[20,000/20,000]

제공=대외협력실 정동현

# 재학생과 동문, 동국 MBA 빛냈다

이영달(Entrepreneurship MBA PD)교수는 현재 Entrepreneurship MBA 과정에 재학 중인 이정석(26) 학생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캠퍼스 CEO발굴지원사업-창업도전형’에 최종 선정되어 창업지원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정석 학생은 지난해 본교 경영학과 졸업생을 앞두고 현 지도교수인 이영달 교수의 창업론 강좌 수강을 통해 취업 대신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위해 우리 동국대 Entrepreneurship MBA 과정에 진학, 이번 지원 사업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실로 본격적인 창업의 과정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례는 최근 청년창업 실패사례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체계적인 학습과 함께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체계적 위험관리를 기초로 한 창업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이정석

지정근 대표

어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지난해 본 과정을 수학하고 올해 2월 졸업한 넥서스메디케어(주) 지정근(36) 대표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 대표는 Entrepreneurship MBA 과정 재학 중 동국대에 설립된 보건 복지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게 되었다. 지 대표는 첫 아이템으로 ‘스마트 전립선 온열 치료기’를 현재 개발 중이며, 지난해와 올해 총 6천만 원의 개발자금과 함께 임상을 포함한 기술개발 전 과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사운영실 과장 김해덕

# 민병덕 前KB국민은행장 석좌교수 임용



민병덕 석좌교수

민병덕 전 KB국민은행 행장이 지난 10월 1일자로 경영대학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민 동문은 본교 경영학과를 81년 졸업한 후 30년간 은행업에 종사하면서 KB국민은행이 최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내외 위상을 높였으며 소통과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행장 재임 중 본교와 불교계에도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금융계 등 사회 진출을 앞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사운영실 지현중

# 2013 도총락 경영사례 경진대회 개최



도총락 회장 등 MBA 장학금 전달식 모습

MBA 재학생들의 실무적이고 현장감 있는 학습동기 촉진과 대외적으로 MBA의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13 도총락 경영사례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장인 이영면 원장은 “경영학을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며,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안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번 사례경진대회는 MBA동문인 도총락(도총출당스 회장)의 전액 지원으로 열리며 교내 대외협력본부·LINC사업단·창업지원단에서 그리고 교외 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후원한다. 지난 10월 7일부터 접수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28일 사례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사례분석 주제 등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학사운영실 김해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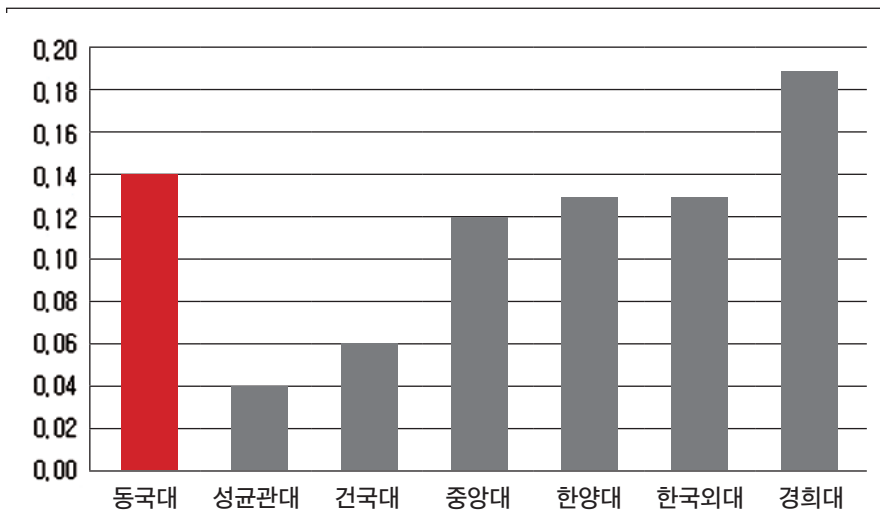
# 도표로 본 경영대학 교수연구실적

지난 10월 23일 연구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경영대학 교수연구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논문게재실적은 아래 표 참조. 출처=대학알리미/1인당 연구실적)

경영대학은 앞으로 Best Researcher

공시제도를 통한 연구의욕 고취, JCR IF(Impac Factor)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원을 단기과제로, 대학원생 유치 활성화를 장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TOP Journal 논문 착수지원 및 게재지원, SSCI 논문 게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과정운영 등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사운영실 조아람



학교 공지사항

1. 2013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주간 행사

우리 대학은 도심형 첨단융합산업 선도대학으로 지역 기업과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과 함께 하는 '2013산학협력주간'행사를 개최한다. 기간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장소는 중앙도서관과 신공학관 등지이다. 주관 기관은 LINC 사업단, 공학교육혁신센터, 창업지원단, 서울어코드사업단, 취업지원센터, 에너지 인력양성센터 등이며, 후원 기관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 등이다.

2. 글로벌 소셜 창의인재양성 교육과정 개설

LINC 사업단은 사회 전반의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수립을 담당할 인재를 교육하고자 본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강좌는 SNS의 기본 개념 및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기존의 단순 강의 방식을 탈피하여 SNS, 온라인, 모바일 분야와 관련된 기업체 실무자, 업계 전문가와 미팅 및 기업체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수료 시 (사)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에서 인증하는 'Global Social Architect' 인증서 발급 및 '글로벌소셜마케팅전문가'와 '소셜빅데이터분석전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3. 민족동국 가을대동제 개최

우리대학이 가을대동제를 개최한다. 기간은 11월 5일에서 7일까지이며, 특히 주요 행사로 가요제가 11월 7일에 선보인다. 신청기한은 10월 18일까지였으며, 솔로예선은 10월 31일, 단체예선은 11월 1일에 진행됐고, 본선무대는 11월 7일 선보일 예정이다. 총학생회에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으며 www.dgyou.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4. 독서캠프 학생참여자 모집

중앙도서관에서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중 '독서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서캠프'를 시행한다. 행사비는 무료이며, 점심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 대상은 학부 재학생 선착순 80명이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일시는 11월 16일(토) 9시 ~ 18시이며, 장소는 신공학관 3층 강의실 및 4층 강당이다.

5. 멘토 라이브러리

중앙도서관은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난 멘토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은 평소 관심있었던 주제와 관련해 '사람 책'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일시는 2013년 10월, 11월 수시이며 장소는 세미나실 또는 AV실이다.

경영대학 공지사항

1. 수료제도에 대한 안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취업난이 가중되자 졸업을 하지 않고, 취업이 되기 전까지 수료상태로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 선발 시에 졸업생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하는 점이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으며, 신입사원의 채용문은 좁아진 반면 날이 갈수록 미취업 졸업예정자와 졸업생이 적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중되는 취업난을 극복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수료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기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적상태를 말한다. 수료 제도는 일반적 수료와 선택적 수료로 구분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수료

- 정규학기(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총 이수 학점, 필수 과목 학점, 영어강의 수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영어성적이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료처리가 됨
- 영어성적 또는 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수료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며, 둘 다 Pass 되면 해당 년도의 봄/가을에 졸업할 수 있음
- 일반적 수료 상태였던 학생은 선택적 수료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본인이 졸업하고 싶은 시기에 맞춰 영어성적 또는 논문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선택적 수료

- 정규학기(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관련한 모든 조건(졸업학점, 영어패스, 논문 또는 졸업시험)을 충족하여 졸업하게 되는 학생 중, 수료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은 학생
- 선택적 수료 신청 기간에 udrims에서 개별 신청 필요 (공지사항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란에 올라오며, 보통 1월(봄 졸업)과 7월(가을 졸업) 경에 공지됨)
- 선택적 수료는 총 2번까지 가능하며, 학기별로 신청해야 함
- 별도로 연장 신청을 안 하거나 2번 모두 사용했을 경우, 다음 학기에 자동으로 졸업됨
- 조기졸업자는 선택적 수료 신청 불가

수료생의 경우 학점 이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 학기 등록 및 청강은 불가능하다. 수료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때문에 졸업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2. Dongguk Business School English Presentation and Business Analysis Contest

경영대학에서 2013-2학기 English Presentation and Business Analysis Contest를 개최한다. 평소 수업시간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경영 사례를 분석을 해보고 영어 발표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영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 응모 대상 : 경영대학 소속 재학생 /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별 응모 가능(2013-1학기 수상자 제외)
- ◎ 발표 주제 : 총 5가지 주제 중 택 1 (주제는 경영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별첨 소정양식)"와 "발표자료"를 함께 e-mail 송부
- ◎ e-mail : dbs@dongguk.edu
- ◎ 파일명 : 지원신청서\_김동국(응모대표자 성명), 발표자료\_김동국(응모 대표자 성명)
-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18일(금) ~ 2014년 1월 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 시상내역 및 상금
  - 대 상(1팀) : 장학금 100만원
  - 우수상(총 2팀) : 팀별 장학금 70만원
  - 장려상(총 2팀) : 팀별 장학금 50만원
- ◎ 수상자를 제외한 참가팀에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 예정

3. 졸업논문 제출 안내

2014년 2월에 졸업할 예정인 졸업예정자 및 수료생들은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간 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할 것을 권한다. 자세한 사항 및 논문 예시는 경영대학 홈페이지 학과별 졸업논문 공지란을 참고하면 된다.

1. 논문양식 : 신명조 / 11 Point / 줄간격 180 / 여백 왼쪽 40, 오른쪽 40, 위쪽 40, 아래쪽 40, 머리말 15, 꼬리말 14, 제본 0 / 각주와 참고문헌이 없는 논문은 졸업논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매수 30매 이상
2. 제출방법 : 논문 1부와 논문이 담긴 디스켓 혹은 CD 1부를 함께 제출
3. 학과별 논문 제출기한
  - 경영학과 : 2013.11.25(월)~27(수) 17시, 경영학과 사무실(L429)
  - 회계학과 : 2013.11.04(월)~22(금) 17시, 회계학과 사무실(M448)
  - 경영정보학과는 졸업시험으로 대체 (별도 공지 예정)



넥스텍스트 창업자들. 왼쪽부터 김선중(경영10), 양윤지(경영11), 이지애(경영11), 김진우(경영11)

## 동악의 청년CEO를 만나다!

### 전자책 출판기업 넥스텍스트 창업한 당찬 경영학도들

본교 LINC산학협력단의 지원 아래 지난 6월부터 전자책 출판기업 넥스텍스트(www.nex-text.com)를 창업해 운영중인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자본금과 시간이 충분치 않은 대학생으로서 창업에 도전하게 된 계기, 창업을 하며 겪은 어려움, 현재 진행중인 전자책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 창업의 꿈을 갖고 있는 후배 대학생들에게 해줄 조언 등 창업에 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 질문했다.

Q. 창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오래 전부터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 요즘 취업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 하루에 5개씩 기업 지원용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도 많다. 벤처 기업에서 인턴도 많이 해봤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바늘구멍 뚫기인 취업보다 전부터 원했던 창업 쪽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었다.

창업하려고 생각한 몇 가지 아이템 중 전자책 부문에 대해 올해 1월부터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교재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걸 보며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종이로 된 교재가 갖는 불편함을 줄이면서 교재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도 있었다.

Q. 창업 시 겪은 어려움은 없었나.

자금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에 대한 주위 시선도 곱지 않은 편이라 아직까지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했다. 그런데 학교에 창업의 꿈을 꾸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도전했고, 동국대 산학 협력단의 창조적 인재 역량 양성 프로그램과 청년CEO 두 프로그램에서 각각 800만원, 600만원의 자본금 지원을 받았다. 학교의 이런 지원 덕에 수월하게 창

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 전자책 사업은 다른 IT사업처럼 금전보다 인적 자원이 더 요구되는 특성을 지녀서 창업 시작이 조금 더 쉬웠던 점도 있다.

Q.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대학 수업 교재를 E-Book으로 출판해 웹사이트에서 유통하고 있다. 대학생이 교재를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 한 학기동안 렌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통 과정의 비용을 줄여 시중에 파는 일반 교재에 비해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교재를 이용할 수 있다. 한 학기 쓰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교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교재를 이용할 수 있으니 금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한 사업이다.

Q.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인터뷰에 참석한 4명의 학생 외에 콘텐츠 개발 부분을 담당하는 학생 2명도 함께 작업하고 있다. 크게 마케팅, 서비스 기획,

편집, 콘텐츠 개발의 네 분야로 나눠 각자 맡은 작업을 진행한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이템을 발표하고 회의를 통해 아이템이 선정되면 웹페이지 개발에 들어간다. 그 이후 교수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메일 등으로 연락을 진행한다. 사업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설명드리고 교수님이 허락하시면 콘텐츠를 확보해 제작에 들어가고 e-book을 편집한다.

Q. 전자책 출판 사업이니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주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콘텐츠를 얻고 있다. 교양과목 교재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거쳐 몇 가지 출판물을 만들어둔 상태다. 교수님 본인께서 집필하신 책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제약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쪽에 주력하고 있다.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확장되면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학교 교수님과도 접촉하며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Q. 갓 시작한 사업이고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전자책 부문이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알리고 있나.

주요 콘텐츠가 수업의 교재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한 홍보가 필요했다. 포스터 부착같은 홍보방법에 힘을 쏟기보단 수업 시작 전에 강의실을 찾아 학생들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썼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도 진행 중이었는데, 새 학기에 들어서면서 그 쪽으로는 조금 소홀해진 경향이 있다(웃음).

Q.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다. 이용자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태고, 현재는 시범서비스로 한 학기 동안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수익은 많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차차 콘텐츠의 수를 늘리며 홍보를 확대하면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그 이후에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효과에 힘입어 광고를 수주해 광고수익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우리 콘텐츠를 유통 중인 웹사이트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다음에는 웹 페이지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Q. 전자책 사업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향후 지속해 나갈 예정인가.

사업의 취지를 담은 슬로건이 ‘of 대학생, by 대학생, for 대학생’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인 우리 손으로 대학생들을 위해 만든 사업이다. 이런 좋은 취지 때문에 사업 콘텐츠 확보 대상인 교수님들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경우가 많았다. 우리 역시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생의 고충과 니즈를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큰 역할을 한다. 유통 마진을 전부 없애 반값 이상으로 싼 값에 같은 질의 책을 제공하니 차차 콘텐츠 양만 확보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Q. 먼저 창업을 시작한 선배로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다른 대학생 후배들에게 한마디.

오히려 대학생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창

업에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졸업 후 창업을 시작하면 학교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까 언급했던 대학생의 도전 정신, 끝없는 패기, 열정 등의 대학생만이 가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덕을 볼 수가 없다. 창업이 정말 본인에게 맞고 확실한 꿈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대학생인 지금 바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창업을 시작할 때 꼭 인생의 목표를 창업으로 삼아 크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지에 학생의 경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창업을 통해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지식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인생의 좋은 경험을 쌓았다. 일반 기업보다 재밌고 새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았고 값진 경험이였다.

‘넥스트스트’의 CEO들은 여느 대학생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처럼 꿈만 꾸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창업이라는 어찌 보면 크고 어려울 수 있는 일에 도전해 나름의 성과를 내었다. 학업을 병행하며 사업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전했고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꿈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학교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있지만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동국대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 창업의 꿈을 펼칠 후배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윤정희 기자, 김보경 기자



# “기업가 정신은 반드시 필요한 생존 기술”

창업 관련 다양한 강의 펼치는 MBA 이영달 교수

경영대 MBA 소속으로 창업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달 교수님을 만나 청년 창업이 갖는 의의,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 등 창업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Q.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과 창업이라는 두 가지 경력 대안이 있을 때,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비전이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회 추구형 창업입니다.

Q. 기회 추구형 창업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은 나를 위해서 100%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형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장점은 가치창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치는 기술혁신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한 국가 단위를 놓고 볼 때, 공공부문, 비영리단체, 기업이 있는데 대략 95%이상의 근로자들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기업 활동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만들어준다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학생 기준을 72% 달합니다. 한국은 절반도 안 되는 30%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한국에 있는 청년 세대들은 도전적이고 가치창출을 하는 일보다는 안정적이고 보호되어 있는 곳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회는 사회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밝은 미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업은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청년 창업의 불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력을 쌓은 후에 할 수도 있는데, 대학 시절의 창업은 위험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요?

이제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그럼 대학 시절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창업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고용이 불안한 환경이 지속될 때는 대학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취업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실제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경우에 경영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제 실무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대학에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경험해 본 학생들은 내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내가 이 기업에 와서 어떻게 가치창출을 해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다닐 때 창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 것은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일 때는 비즈니스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프로젝트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하지만 청년 창업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회가 있는 건지, 그 기회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건지, 고객으로부터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과정,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이죠. 대학생이 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을 경험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창업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많은 실패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동아리를 통해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아리를 통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는 게임입니다. 특별히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경영학 전공자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권윤환 기자, 김보경 기자



## My DBS Experience

I am Ginelle Rivera and I was a Filipino exchange student from the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who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in Seoul under a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my school and the Dongguk Business School. Along with six other participants, I enrolled into DBS's spring term program which gave me the chance to experience living and studying in Seoul from March to June 2013. The Dongguk Business School allowed my colleagues and me to enlist four subjects which is equivalent to 12 units for the term. Other than that, we were given dormitory rooms and monthly allowances for the duration of our stay. In exchange for all of these, we had to become tutors in the DBS's English Zone (or more commonly known as E-zone), an English tutorial program, which gave us a way to interact with eager and friendly Korean schoolmates from the Business School and help them in learning the English language.

My academic life in the Dongguk Business School started with my awkward and funny introductions to the professors, whose subjects I enlisted in, and my classmates, particularly the ones I became group mates with. Due to the language barrier, I had to get through a couple of sessions relying on my weak Korean writing and speaking skills especially during group meetings. There were times when I felt very inadequate because I could not contribute much to group projects because I could not communicate my ideas well. What also came as a surprise was the fact that I was in a group of diversified members from age to nationality because I was used to being in a group that I can easily relate to. I also became nervous at times when the professors would give out quizzes and exams because I was new to their systems and even if I have faced a lot of those things before, everything still felt new. I also

saw how my classmates really studied hard and for hours that are much longer than my average studying time. There was a lot of pressure to keep up and not to be seen as a freeloader to my group mates. Sometimes, I also felt embarrassed towards my E-zone tutees whenever I come in late or I have to cancel my session with them due to particular reasons.

Despite it all however, I was able to overcome the various problems and insecurities of being a foreigner studying in the DBS. I really appreciate how my professors became very considerate as they took time and effort to explain (up to the point where they would personally ask if I needed any help at all). My classmates and group mates, on the other hand, gave me a lot of support by being effective translators and reliable friends. Whenever we had to meet outside for group meetings, they made sure I was updated frequently and assisted in a lot of ways possible. These new friends also brightened up my day through giving simple gifts such as a cup of coffee or an order of bagel from the nearest coffee shop - just to get through late nights of working on a lot of requirements. On the topic of E-zone, I may have been a tutor, but in turn, I realized that along with helping my tutees, I learned a lot from them as well. I may have had concerns with regards to communicating my thoughts and ideas properly, but a lot of them became really patient

and understanding about it. Some of them even went the extra mile and gave me the opportunity to personally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Life in the Dongguk Business School may have been nerve-wracking at first, but in all sorts of ways, it was fun and engaging. Classroom activities were either dull or exciting, but regardless, participating in those activities and listening in lectures helped me shape a new perception about myself which showed me that I could be more positive and hardworking. As a student taking up management, having the experience to interact with people of diverse backgrounds introduced me to a whole new level of work which I could use in the field of business. My DBS experience formed a huge part of my four-month stay in Seoul as it was the one which started it and as an ending note, I would like to show extreme gratitude again to the Dongguk Business School administrative board and the assistants, and the professors whose classes I took for making my learning in DBS possible. To my respective groups from my International Management, Marketing, and Market Research classes, and my four E-zone tutees, this whole DBS experience became a wild and enjoyable roller-coaster ride and I know it would not be possible if it was not because of you guys, so thank you.



Ginelle Rivera  
(UA&P, 경영3)

# DBS News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경영대 신문 1호 발간과 함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의 각종 소식을 널리 전할 DBS News 페이스북 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DBS News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경영대 각종 홍보 및 소식 전달! 전달성이 다소 부족한 지면 신문을 보완해서 경영대의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경영대 학생들의 참여 공간! 신문의 구성을 보면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DBS News의 각종 이벤트!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소하게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경영대 내 스터디 모집! 경영대 학생들 간의 각종 스터디 모임을 원할 경우에 기자단 페이지에 쪽지를 보내주시면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공고를 해드립니다.

위와 같이 DBS News 페이지는 기자단과 경영대 학생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BS News에 대한 경



영대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이 필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다음의 지시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경영대 학우 여러분! 지금 바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서 DBS News를 검색해주세요. 그다음으로 위 사진에서 보이는 동국대학교 마크가 보이는 DBS News 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자단과 여러분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자단이 올리는 각종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DBS News 페이스북 페이지는 경영대 학생들의 관심과 함께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윤재 기자**

##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Conner 소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신문에서 학생소식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니 만큼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하고 싶은 말을 DBSN에서 직접 사연을 접수받아 게재하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경영대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계학과 09학번 김민정** 경영대 사무실에 계신 안경쓰신 남자 조교 분! 수강신청이랑 이수학점 상담 문제로 방문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회계학과 08학번 고병찬** 올해 CPA 시험에 합격한 예비 회계사 고병찬입니다. 그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성원 보내주신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영호형, 범모형, 봉익이형, 상용이형, 찬우, 지혜, 현아, 민정, 보승, 형수 등등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경영대 학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www.facebook.com/dbsnews

저같이 부족한 학생에게 조교일도 맡겨 주신 남해정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멋진 사람 돼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경영학과 09학번 김우진** 지난학기 팀플에서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떨려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경영대 신문을 통해서 그녀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경영학과 류아! 나 너 좋아한다!

**경영학과 13학번 이은상** 이번겨울에 해외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이것저것 많아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실분 cjdffd4710@nate.com 메일 부탁드립니다

**정리=박경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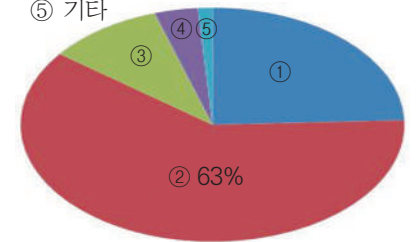
## 재미로 보는 경영대 SURVEY

이번 SURVEY는 <이런 유형의 학생 NO NO NO, 이런 유형의 수업 NO NO NO>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다양한 주제로 SURVEY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SURVEY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신문에서 진행될 SURVEY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실시기간 : 2013.10.20~26
- 응답자 : 교수15명, 학생 30명, 총 45명

### Q. 이런 학생은, NO NO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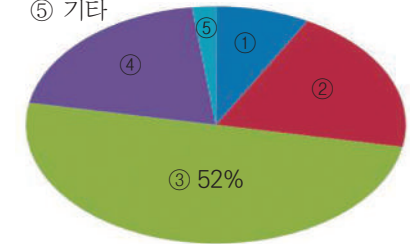
- ① 수업시간 중 갑자기 나가는 학생
- ② 성적 올려달라고 억지 부리는 학생
- ③ 수업시간에 다른 것 하는 학생
- ④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
- ⑤ 기타



그렇다면 학생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수업은 어떤 유형일까요?

### Q. 이런 수업은, NO NO NO!

- ① 시험 어렵게 나오는 수업
- ② 시간 꼭 채워서 하는 수업
- ③ 과제 많이 내주는 수업
- ④ 점수 받기 힘든 수업
- ⑤ 기타



교수님들은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의가 없는 학생을 좋게 보지 않으시는 반면, 재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대외활동 등 학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가 많은 수업에 대해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좋은 경영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설문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호에서 만나요!

**신영은 기자, 조윤재 기자**

## 외로운 삼인방 복학생 · 편입생 · 취준생의 학교생활

학교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생들은 복학생일 것입니다. 군대 2년간의 공백은 그들을 외롭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류가 있다면 바로 편입생들입니다. 다른 학교를 다니다 와서 선배, 후배, 동기의 관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마지막 학생의 부류는 바로 취업 준비생(이하 취준생)입니다. 이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취업전선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외로움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둔 부류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주변사람들에게 직접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들만의 고충과 외로움이 묻어나는 학교생활에 대해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학생 회계학과 10 김OO
- 편입생 경영학과 06 김OO
- 취준생 경영학과 08 정OO

Q. 개강 첫날 학교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복학생** 군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으로 다시 학교의 땅을 밟게 되니 가슴이 벅차고 즐거웠습니다. 군대 안에서 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학교에 가서 동기,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점도 관리하고 CC(campus couple)도 할 생각에 설렘했습니다.

**편입생** 열심히 편입 공부를 해서 들어온 학교였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와 설렘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편입학과와는 달리, 학생들의 생기가 있고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이러한 기운에 동화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입을 했으니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친해지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취준생** 별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서 취업해서 최대한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취업 원서 접수시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인적성 검사와 각 기업들의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한 생각으로 꽂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Q. 개강 후 첫 수업은 어땠었나요?

**복학생** 제대로 수업을 들어보겠다고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들으려니 밀려오는 건 졸음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도 아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얼굴을 알고 지냈던 여자후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인사를 할까? 말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서로 지나쳤습니다. 그 후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계속 후회했습니다.

**편입생** 수업시작 삼오분 전에 가서 가장 좋은 자리인 가운데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던 도중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업 끝나고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누구와 먹지?’ 지난번 편입생 오티 때 전화번호를 교환했었지만, 아직 어색한 사이이기에 선뜻 연락하기가 힘들었고, 밥을 혼자 먹자니 그건 정말 제 자신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결국 소위 명당이라 불리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수업보다는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취준생** 마지막 학기는 취업을 위해 모든 초점을 다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짜피 이번 학기의 학점은 평점과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맨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부담이 없는 팀 프로젝트를 내 주시길 바라면서, 자기소개서에 쓸 나의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해 생각하면서 수업시간을 보냈습니다.

개강 후 처음 학교에 왔을 때의 느낌부터 시작해서, 첫 수업에 대한 포부, 앉는 자리, 수업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경험과 생각이 복학생, 편입생, 취준생별로 각각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기 초 학교에 첫발을 내딛고 첫 수업을 수강한 것을 시작으로 학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그들만의 경험과 느낌, 대처법에 대해서 진솔한 경험이 깃든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팀프로젝트에 대한 그들만의 기억과 느낌, 학기 초 금요일을 보내는 그들만의 스케줄과 그들의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준 기자**

## 경영대 Fashionista



권현아  
(경영10)

- 아우터 LAP-11만9천원
- 상의 인터넷 쇼핑물-1만4천원
- 하의 인터넷 쇼핑물-3만7천원
- 가방 인터넷 쇼핑물-8만9천원
- 신발 반스-5만원대

“옷은 주로 인터넷에서 사는 편이에요. 꼭 브랜드가 있는 옷이 아니어도 마음에 들고 품질이 괜찮다면 구매를 하죠. 오프라인에서 살 때는 지하상가를 간다가나 옷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쇼핑센터에 가는데 보통은 온라인에서 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꼴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스타일을 정해놓고 사지는 않고 때에 따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사서 스타일링 해요. 더 어렵게 때는 좀 튀는 옷을 많이 구매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오래 입을 수 있는지, 자주 입을 수 있는지 실용성을 많이 생각하고 사게 되요. 저보다 옷을 잘 입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쑥스럽네요.”

신영은 기자

mba.dongguk.edu



# 자부심 위의 자부심 Dongguk MBA AACSB 국제인증 획득!

텍사스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Dongguk MBA**  
(Full-time)

전문경영인을 양성하는  
**Executive MBA**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추구하는 국내 최초  
**Entrepreneurship MBA**

경영학을 바탕으로 제약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최초  
**Pharm-MBA**

사회 각 분야의 최고 리더를 양성하는  
**Leadership MBA**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복수학위 · 교환학생 프로그램

GMAT 면제, in-state tuition 등 특별 혜택 제공

중국 Sun Yat-sen University 교환학생 프로그램(전 강좌 영어수업)



2014 전기  
신입생모집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7일(화)
- 면접 일 : 2014년 1월 11일(토)
- 02)2260-8884 ~ 5 / mba.dongguk.edu

- 합격발표 : 2014년 1월 15일(수)
- 등록일자 : 2014년 1월 20일(월) ~ 28일(화)